

2019 공원거리예술제 <예술가가 공원을 기록하는 방법>

공원 속 달콤한 썬더 '도시꿀집' - 여의도공원

참여 작가 - 유려한

《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1. 예술가가 공원을 기록하는 방법
2. 예술가가 만난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
3. 도시꿀집과 사람, 그 사이의 예술

1. 예술가가 공원을 기록하는 방법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제법 다양하다. 요즘은 SNS를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이 익숙함을 넘어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본디 소통은 상대와 만나서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으며 대화하는 신체와 신체의 만남이다. 소통疏通의 본뜻인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에 가까워지는 일은 존중과 배려가 있는 ‘대면’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나는 <도시꿀집> 프로젝트에서 ‘대면’하는 소통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술과 일상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기록할 대상이 주로 ‘직장인’이라는 점, ‘여의도공원’의 독특한 장소성과 도시환경적 맥락, 무엇보다 <도시꿀집> 프로젝트의 핵심이 ‘잠간의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와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라는 꿀 같은 낮잠을 선물하는 과정임을 고려했다.

자신의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라포rapport가 형성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 보고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타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일도 은근히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일종의 ‘고해성사’ 컨셉을 빌려서(누군가는 점집 아니냐고 했다)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고 글과 그림 혹은 대화만으로 생각과 감정을 주고 받는 과정을 실행했다. 나는 참여자들이 잠시나마 걱정과 고민을 덜고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랐다. 온라인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얻는 창구와도 다른 것으로,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지만 신체적 경험의 일부만을 공유하는 새로움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과잉 연결에서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꿀 같은 점심 시간마저 ‘일’처럼 느껴지는 예술적 개입은 스스로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잠시나마 긴장을 내려놓고 기분 전환을 위해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얼굴과 기본 인적사항을 파악하며 대화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또한,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예술을 펼치고 관객은 수동적으로 바라보며 관조하는 일 - “나는 예술가이고, 당신은 관객이다”와 같은 선을 긋는 일도 꾸릴 생각이 없었다. 나는 프로젝트의 컨셉과 조화롭게 닿으면서도 참여자와 예술가가 동등하게 그리고 새롭게 일상의 소통을 경험하는 일을 고민했고, 그것이 <도시꿀집> 프로젝트에서 내가 설정한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여자에게 1) 글 또는 그림으로만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방법 2)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만 주고 받는 대화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우선 글과 그림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자판 타이핑에 익숙해진 현대인이 '종이에 펜을 잡고 글씨 쓰기 또는 그림 끄적이기'라는 아날로그적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알고는 있으나 막상 잘 사용하지 않는 소통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또한 얼굴을 보지 않는 가운데 목소리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도시꽃집> 공간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청각적 요소만을 활용하여 일상의 작지만 신선한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예술가와 참가자가 주고 받은 글, 그림, 대화의 과정이 모두 예술이다. 이러한 시도를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며 시간을 공유한 일이 바로 일상 속 예술이었다. 또한 1:다가 아닌 1:1의 만남이었기에 비교적 밀도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예술가에게 공원에서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소통하는 일은 일상과 일상이 아닌 것의 어느 경계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전환을 시도하는 일이다. 그것은 예술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일이기도 하고, '공원에서의 예술'을 떠올렸을 때 흔히 상상되는 기존 문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술과 창조적인 일상의 재설정을 고민하는 일이기도 했다. 예술가가 도취적인 태도로 예술적 언어들을 타인 앞에서 발표하거나 시혜주의자적인 입장이 되는 순간 예술의 재미와 잠재적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나누어보고 소통하는 경험을 시도한 후에 어떤 측면에서든 참여자에게(그리고 나에게도) 새로운 씨앗이 녹아든다면 일상 속 예술을 즐겁게 실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작은 바람만 있을 뿐이다.

2. 예술가가 만난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

나는 참여작가로 2019 공원거리예술제 <예술가가 공원을 기록하는 방법>의 '도시꽃집'에 함께 하며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 5일간 주로 점심 시간(11시부터 14시까지)에 사람들을 만났다. '감정공유방' 또는 '소통방'이라 불리는 별도의 도시꽃집 섹션에서 참여자를 기다리며 한 사람당 25분간의 소통 경험을 가졌다. 1시간이라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점심 시간의 일부를 내어준 직장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사람의 모습과 생각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참여자들의 이야기나 고민도 모두 달랐기에, 참여자와 나누는 주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 ✓ 총 11명의 감정공유방(소통방) 참여자를 만났으며 글로 주고 받는 소통을 선택한 참여자가 7명, 대화를 선택한 참여자가 4명이었다.
- ✓ 감정공유방(소통방)을 사전 예약하였으나 취소한 사람이 1명 있었다.
- ✓ 그림 등의 시각적 형태로만 소통을 시도한 사람은 없었으며, 어떤 참가자가 스케치북에 남긴 낙서가 있었는데 작은 꽃 그림과 함께 ‘놀이 먹고 하고프다’는 문구였다.
- ✓ 예술가가 참여자에게 질문하고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인사, 오늘의 기분이 어떠한지
 - 여의도가 직장인지
 - 공원에 자주 방문하는지
 - 공원에 방문하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한지 묻기
 - 평소에 잘 쉬고 있는지
 -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 고민, 이야기가 있는지
- ✓ 주어진 25분은 빨리 지나가서 깊은 이야기를 전개할 때 급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글을 주고 받는 것은 글을 적고 상대의 글을 읽고 다시 생각하며 쓰는 과정이기에 시간이 넉넉치는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또한 1시간 안에 시간을 내어야 하는 직장인의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참여자 입장에서 해보고 싶지만 체험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있었다.
- ✓ 주고 받은 내용의 골자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여자] 글과 그림

오늘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다고 답한 참여자는 혼자 지냈던 영국의 리버풀을 떠올렸다. 나는 온갖 문제와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혼자 있고 싶은 심정에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며 내면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숨통도 트인다고 전하면서 나 역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참여자는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점심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참여자:플랫 화이트 커피와 막 구운 크로와상, 예술가: 바게트와 크로와상)을 공유하며 대화 소재를 전환했다. 나는 참여자가 공원에서 해당 음식을 먹으면서 햇볕을 쬐면 좋겠다는 글을 건네며 공원에 오면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드는지 물었다. 참여자는 공원에 오면 “마음이 비워지고 넋을 놓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참여자는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 없는, 덩그러니 벤치에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도 덧붙였다.

나는 참여자에게 선택과 결정의 연속에 그간 생각과 마음이 쉴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다고 답하며, 공원에 자주 오셔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원이 더 많아져서 완벽한 타인들 속에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그러자 참여자는 나무와 벤치,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옆에는 ‘Fly to the ?’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나는 나무 위의 집을 그려넣었다. 참가자의 그림을 보니 나무집 Tree House이 떠올라서 “나무 집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다, 나의 로망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힘든 마음 끌어안고 버티고 견뎌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그 마음 잘 다독이고 풀어놓기도 하고 온전한 나로 숨 쉬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자는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내게도 빌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감사의 표현과 더불어 “모든 것은 다 변하니 힘든 순간도 뒤돌아보면 그랬구나, 하는 날이 얼른 찾아오시길 바란다”고 빌어드렸다. 시간이 다 되어서 소통은 종료되었다.

[두 번째 참여자] 글

오늘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는 “조금 피곤하다”고 답했다. 나는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셨거나 푹 쉬지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공원에 오면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드는지 질문했다. 참여자는 일이 좀 많았고, 좀 쉬고 싶은 생각, 여행도 가고 싶은 생각을 전했다. 공원에 오면 “마음이 좀 풀어지고 잠시 여행이 온 기분이 들어서 평온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여의도가 참여자의 직장은 아니었다. 참여자는 나에게 여의도가 직장인지 물으며 도시풀집 체험과 이런 소통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었다. (* 예술가에게 반가운 질문이었다. 오직 두 번째 참여자만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의 감정과 기분, 생각을 계속 확인하고 물었다. 그래서인지 예술가 입장에서도 정말 ‘소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멀리 떠날 수는 없지만 공원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다. 여의도가 직장은 아니고 자주 오지는 않는다. 처음 시도해보는 소통 방식인

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 누군가와 대면을 하는 일이 피곤할 때가 많아서 이런 방식이 덜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된다면 어떤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 물었다. 참여자는 이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 멍 때리면서 뒹굴거리기, 좋아하는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과 마음껏 눈 마주치면서 수다떨고 대화하기(뒷담화도 좀 하고), 맛있는 것 시간에 쫓기지 않고 먹으면서 놀기, 요즘 개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참여자는 내게 가을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참여자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가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가끔 감정이 오락가락한다고 했다. 그럴 때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하고 바랐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제멋대로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을 언급했다.

나는 참여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까 가끔 생각한다고도 했다. (나도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 일 이외에 사생활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너무 바쁜 삶을 꾸렸다, 라고 공감하는 말을 적어드렸다.

더불어, 나는 가을에 태어났고 가을이 제일 좋다고도 전하였다. 그러면서 누군가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마음 편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운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냥 나의 친구가 된다, 나의 가장 친구는 나”라는 의견도 드렸다. 그것을 보고 참여자는 “아, 슬프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슬프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참여자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태어났다면 이맘때가, 그러니까 단풍이 다 들기 직전, 낙엽이 떨어지기 전,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계절이 가장 좋다고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마음을 나누던 친구가 하늘 나라로 먼저 갔다고 했다. 그 친구가 그리운 것인지,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이 그리운건지 사실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자 역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자신이라며.

참여자는 이어서 나에게 요즘 많이 바쁘시냐, 밥은 먹고 다니시냐는 친절한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나는 10월말과 11월 초의 가을을 느끼는 것은 행운이다, 섬세하시다고 전했고 바쁘지만 밥은 빼놓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는 마음을 나누던 참여자의 친구 이야기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것은 무슨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부재 때문이라면 나의 경우 먼저 간 사람들을 떠올리면 어딘가 멀리 긴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음 속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더불어, 누군가와 마음이 잘 맞아서 소통하는 일은 또 하나의 나를 들여다보는 일 같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 참여자의 곁에 또 찾아오길 바란다, 공원에서 이런 시간을 자주 보내시며 쉽도 가지시고 누군가를 그리워도 하시라고 해보았다.

참여자의 마지막 글은 다음과 같았다. “감사하다, 오랜만인 것 같다. 늘 아무렇지 않은 듯, 씩씩한 척 하고 사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오랜만에 필담을 나누니 기분이 엄청 이상하다. 아주 오래 전으로, 오래 전 기억 속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틈’을 만든다. 책임지시라!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펍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웃거리는 것만 빼면!”

그렇게 한창 써내려간 참여자는 내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요즘 하고 싶은 일, 꿈 같은 것을 궁금해했다. 그에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매일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메모를 해놓는다.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일, 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머뭇거리게 된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으나 시간이 종료되었다. 참여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메모를 남겼다. “제일 하고 싶은 일, 꿈 꼭 이루시길 바라요! 저도 감사해요!”

[세 번째 참여자] 글

오늘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것 같아요.”라고 최초로 긍정의 답변을 주었다. 참여자는 여의도가 직장은 아니지만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다. 연차를 내고 쉬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중 도시꽃집을 만났다. 참여자는 공원 방문에 대해 “공원은 전자파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으며 집근처에는 공원이 없어서 자주는 못가는 편”이라고 전했다. 나는 나무도 많고 새소리도 자주 들리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이라 주변에 숲이 있는 공원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참여자는 휴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보통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 없이 아무 생각없이 돌아다니면서 뇌를 쉬고 있다, 그런 휴식을 취한다.” 나는 그러한 생각이 참 좋게 느껴져서 몸이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 가장 피로가 잘 풀린다고 전 해보았다.

참여자의 고민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과연 40~50대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진다”였다. 나는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우선 답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스스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어떤 가치가 큰 것인지, 무엇이 좀 더 내게 중요한지 잘 생각한다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좀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해보았다.

참여자는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 혼자만 끙끙대다가 이렇게 말하고나니 조금은 용기가 나는 느낌이고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참여자님께 마음이 편한, 좀 더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시길 빌었다. 무엇을 하시더라도 온전히 참여자의 편찮은 나날을 희망하며, 우리는 1이나 0같은 컴퓨터가 아니니 삶을 다르게 편집할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인사의 말씀을 드렸고, 참여자는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하였다.

[네 번째 참여자] 글

오늘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라며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그리고 나의 기분을 물었다. 나는 비가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가을 날이라며 기분이 좋다고 화답했다. 참여자는 비가 오고 난 뒤 개인 날씨가 더 행복하다며 공원에 자주 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이렇게 날 좋을 때 밖으로 나오니까 따뜻한 마음이 생긴다고 전했다.

참여자는 요즘 잘 못 쉬는 느낌이 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가 바쁜건지, 바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했다. 나 혼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잠도 최대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했다. 강박이 되어가는건가 싶기도 하다고 전했다.

나는 같은 생각을 한 나날들이 많아서 공감을 표했다. 나도 늘 일을 벌이는 사람이라서 마음이 바빠서 쉬어도 쉬었다는 기분이 잘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쉬어도, 늦어도, 혼자 있어도 막상 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점을 발견하는 때가 각자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 다른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참여자는 나의 답변을 보고 “와, 정말 새로운 조언인 것 같다,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라... 너무 마음에 드네요”라고 또 전했다. “조언 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나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따뜻

한 마음이 배가 된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라”는 따뜻한 마음을 받고서 프로그램 시간이 종료되었다.

[다섯 번째 참여자] 글

참여자는 요즘 계속 우울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여유가 조금 있어서인지 기분이 괜찮다고 전했다. 회사가 신사에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에 일 때문에 여의도로 온다고 했다. 2시부터 미팅인데 친구 만나서 점심을 먹느라 일찍 나왔다가 공원을 걸었다고 알려주었다. “평소에는 지나가는 통로 같은 곳인데, 노래를 들으면서 걸으니 좋다. 공원에 오면 그제서야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다, 방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바람과 함께 걸을 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 는 의견을 주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은 언제나 고프다고 공감하며 바람을 감각하며 걸을 줄 아는 섬세한 분이시라고 답해드렸다. 참여자는 일이 진짜 힘들다고 했다. 이직한지 6개월째인데 이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한다. 초반에 많이 혼났고 아직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았다고 전했다. 정신 차리고 실수없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지만 일할때마다 바짝 긴장하니 참여자는 생각만해도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쉴 때도 자꾸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물리적 시간보다 정신적 여유가 없으니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지는 기분이라서 요즘은 마음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나도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기에 참여자의 말에 구구절절 공감했다.) 긴장하면서 매 순간 버티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감정, 마음, 생각이 그만큼 소모될 때마다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은 많은데 내 안에 들어오고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공허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다. 그래도 참여자께서 6개월동안 잘 버티셨고 그때마다 익힌 것도 많으실테니 일적으로는 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회사 일이 어떤 고비를 넘기면 조금 편해지면서 리듬을 타게 되지 않던가, 아마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하시다!고 답해드렸다.

그러면서 쉴 수 있을 때 좋은 휴식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 자체로 좋더라고도 표현했다. 마음을 채우는 것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채워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나의 경우 내 마음을 가장 잘 다독이고 채워주는 친구는 이제 내 자신이 되었다◎고 적어드렸다.

참여자는 그래서 자신도 올해 남은 두 달을 자신을 채워보려 한다고 전했다. 누구를 만나고 소비했던 시간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한다고 했다. 잠깐 즐거움

을 느끼는게 좋아서, 외롭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약속을 만들었는데 이제 자신과의 약속을 우선 순위로 두려고 한다 그래서 탭댄스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나에게 “자신과 친구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우선 참여자에게 좋다! 멋지다!라고 응원해드렸고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것,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3자처럼 나를 지켜보는 것, 나에게 정직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내가 무얼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더 괜찮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친해지면 세상에 대해 마음을 여는 일이 어렵지 않아졌다, 어디선가 들었는데 세상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외로울 일이 없다고 하더라, 아주 조금 그 말을 알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참여자는 자신도 조금씩 노력해서 세상에 마음을 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말이 아닌 글로 대화를 하니까 제 안의 생각도 더 명확하게 정의되고 해주신 말씀도 더 잘새겨지는 것 같다, 덕분에 몽글몽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든 어떤 삶을 꾸려가시든 온전히 님의 것이다, 마음 가득 응원한다고 전했고 시간은 종료되었다.

[여섯 번째 참여자] 대화

처음으로 글이 아닌 ‘대화’를 신청한 참여자였다. 참여자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나, 나는 프로그램 고유의 컨셉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렸다. 참여자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삶보다 가끔 일탈을 하는 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자칭 여행유목민이라 바로 공감했다) 많은 생각을 떨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긴다고 하시며 유유자적 하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시골에 가서도 스케줄을 만들며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고 전하셨다. 조급증, 강박, 바빠야 할 것 같은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신체와 생활도 바꾸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다.

참여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절실한 순간에 뛰쳐나갔다.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또 직장인으로 바쁜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절실함으로 과감한 탈출을 했다. 지금 지방에 내려가 머물고 있는데 마음이 비교적 평온하다고 하셨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지방에 있으면 서울이 생각나고 서울에 있으면 지방 생각이 난다고 전하셨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산책을 했는데 아름다운 공원을 걸으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서 시골로 갔는데, 어째 도시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웃으셨다. 서울에 있을 때는 답답하게 느껴서 몰랐는데, 서울을 떠나고보니 한

강을 거니는 일이나 주변에 공원 시설이 있는 것이 참 좋다고도 하셨다. 또 지방에 있으면
휴도 좋고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기도 하셨다.

참여자는 가족들로부터 독립되어 지내고 싶어서 가족의 동의를 얻고 지리산의 어느 원룸
에 머물고 계셨다. 그곳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관련 강좌를 들으며 여전히 공부를 하
고 계셨다. 물론 그 배움에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지만 주 5일을 또 꼭 채워서 시간을 보내
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선생님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고 가정 일과 직장
일을 모두 해내시며 지금까지 살아내신 자체가 정말 멋지고 대견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리
고 어느 절실한 순간에 용기를 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도 말씀드렸다. 생각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기에 선생님의 멋진 용기에 진
심으로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리산에서 다시 바쁘게 살려는 것
은 선생님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습관, 관성 같은 것이 아닐까, 이제 선생님이 한 번도
하지 않아보셨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해보실 차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보았
다. 정말 선생님이 원하셨던 것이 다시 또 바쁜 삶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바꾸어
보셔도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로소 채워지는 것,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고 또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발견해보시라고 권해드
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생각을 나누었다.

선생님은 과연 자신에게 꼭 맞는 조언이라며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그
간 시골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기가 그래도 지금이니까 긍정
적으로 생각해본다고 하셨다. 혼자서 자유를 만끽하는 생활에는 행복하지만 모든 것을 훌
훌 털어버릴만큼 진정 자유로운가 생각한다고 하셨다.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해야 하는데 당장 가족들 반찬거리가 걱정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자기만 생각
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본인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게 쉽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다) 혼자만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닌
지 온전히 편치 않은 마음을 전하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이왕 용기를 내신 김에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진정 원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간 가족에 충분히 헌신하셨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분명 제 앞가림 하면서 나아갈테니, 지금이라도 가족 걱정은 덜고 본인에게 집중하시면 좋
겠다고 의견을 드려보았다. 아무래도 선생님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선생님은 이 말에 크게 공감하셨다. 시간이 다 되어 지리산에 오시면 꼭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말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종료하였다.

[일곱 번째 참여자] 글 ※ 자신의 참여 내용(글)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기를 요청하심.

참여자는 날씨가 좋다는 말과 함께 공원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심 시간에 산책하면 “아, 집에 가고 싶다, 퇴근하고 놀러가고 싶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림 상담을 하는건지 물으시기에 상담이라기 보다는 참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마음껏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림으로 답도 해드리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 역시 직장생활 할 때는 퇴근 시간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하니 크게 공감하였다.

참여자는 지난 주에 호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알아 들어서 요즘 유학을 가야 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즘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은 다 유학파에 스펙도 짱짱하다며 그 속에서 자신은 영어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 미국으로 도망가고만 싶다고 전했다.

나는 그래도 지금껏 잘 버텨오셨고 앞으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해보았다. 영어가 필요하다면 자투리 시간에 조금씩 공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해왔다고 말씀드렸다. 참여자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면 특히 더 이민을 가고 싶다며, 나에게 직장생활을 하셨구나... 작가라고 들었는데 퇴사에 성공하신 것 같아서 부럽다고 적으셨다. 자신은 한 때 외국을 돌아다니며 여행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꿨는데 지금은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공무원 조직, 기업, 제 3지대에 다 있어보았다고 전하며, 지금 이렇게 독립으로 활동하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 어쨌거나 나에게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10년 걸렸다고 전하였다. 참여자는 내게 멋지다며 자기 길을 찾아서 간다는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나는 참여자에게 여행을 좋아하신다니 어느 곳이 좋았는지 물어보았다. 참여자는 터키에서 사람들의 정을 느꼈고 오스트리아는 낭만의 도시여서 좋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언젠가는 가족들 데리고 아이슬란드에 가보고 싶다며 나에게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물었다.

나는 ‘최애’ 여행지가 터키였고, 동서양이 교차되는 지점이 너무나 흥미로웠다, 음식도 맛있고 어딜가나 새롭고 신비로워서 기억에 남는다며 참여자가 꼽은 터키에 공감했다. 그리고 스리랑카 고산지대에서 파란 기차를 탄 것과 스페인 남부 도시들을 추천드렸다. 그렇게 적어놓은 글에 참여자는 별표를 쳐놓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메모와 함께 종

료되었다.

[여덟 번째 참여자] 대화

참여자는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잠깐 여의도 공원에 산책 나온 인근 직장인이었다. 참여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주었는데 점심 시간에 운영되는 것이 직장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기회라고 하였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여기에 시간을 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공원에 오면 편안한 기분이 드는데, 아마 각박한 도시인들을 한 숨 돌리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공원에 오지 않을까, 멀리는 가지 못하니 산책이나 소풍처럼 생각하고 공원을 둘러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참여자의 고민은 직장 생활이나 삶이 딱히 재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둘째치고 삶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약간 무기력해진 느낌이라고 전했다. 나는 시간이 날 때 혹은 주말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색다른 것을 해보거나 운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그 주제로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참여자는 그래도 요가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요가의 다양한 종류에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요가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종료하였다.

[아홉 번째 참여자] 글

참여자의 기분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냥 그런’ 기분이었다. 공원에 자주 오는데, 신선하고 편해서 좋다고 했다. 그런데 보통은 회사가 코 앞이라서 바쁘게 지나가기만 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참여자는 회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고민을 이야기했다. 요즘 특별히 힘든 것은 아닌데, 1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사람들과는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고,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가 모두 다른 관계 속에서 혼자 상처받는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회사는 자신에게 중요한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니지만,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마음으로 상처는 계속 받고 있다고 했다. 물론 자신도 타인들에게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회사가 다들 너무 좋아서 다니는 것

은 아니라는건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언제쯤 그만둘까 생각한다, 여러가지로 장점도 많고 복지도 좋은 회사라서 아까운 마음이 든다, 기대를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다보니 점점 말이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진다는 진지한 고민을 들려주었다.

나는 사람 스트레스만큼 힘든 것이 없다며 우선 공감했다. 나도 회사를 다니며 참여자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아마도 당신이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섬세한 분이어서 그런 것이 좀 더 크게 다가오고 마음에 남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만큼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거나 나를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더 상처 받으시진 않을까, 나의 마음과 타인의 그것은 어긋나고 뒤틀리는 면면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해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를 많이 내려놓았더니 살 것 같다고 전했다.

나는 “어디선가 들었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류장에 내리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타면 같이 가는 존재라고 하더라, 나는 그 말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드렸다. 나의 삶의 어떤 순간, 단계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것대로 고마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자신,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나에게만큼은 정직하게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회사 이외의 영역에서 참여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웃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시간을 좀 더 살뜰히 아껴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전해보았다. 회사 사람은 퇴사하면 그만이지 않겠느냐 ☺ 라는 말을 보태며.

참여자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다 되어 종료되었다.

[열 번째 참여자] 대화

참여자는 사전 예약을 하고 찾아온 사회 초년생이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여의도 어느 회사의 인사과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최근 다른 회사의 정규직 제안이 들어오고 기회가 생겨서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1~2차에 걸친 면접을 보러 가야하는데, 업무 시간을 비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상사에게 어떻게 말해야할 지 고민해왔다. 그러다 엄마의 조언대로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가족이 모두 신경써서 도와야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타 회사 면접일이 있던 날 결근했다. 참여자는 할머니까지 팔아야 하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그것이 참여자가 나누고 싶은 고민이었다.

나는 사회 초년생으로 고민되는 지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하며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좀 더 나은 말과 선택,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전해보았다. 이미 과거의 엮어진 말인데다가, 어떤 경우든 상사는 참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회사에 합격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합격하지 않더라도 인사과 부장이라면 그간 이미 수많은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참여자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드렸다.

이 첫 경험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라도 말하고 고민하는 참여자를 만나서 반갑다고 전했다. 모두가 늘 정직하고 참된 말만을 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 거짓말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살아가면서 수없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보았다. 그럴 때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배워가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여기에 털어놓고 정규직에 합격하는 일이 최선이다,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해드렸다. 더구나 기계공학과 졸업생이라면 좋은 기회가 분명 많을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간이 다 되어서 종료되었다.

[열한 번째 참여자] 대화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다가 도시꽃집을 발견한 참여자는 공원에 오면 기분이 상쾌하다고 했다. 참여자의 고민은 쉬는 시간이나 주말에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계획도 없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가족과 직장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 투자하다보니,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1순위가 무엇인지 잊었다고 했다. 설 때 커피를 마시는 정도일 뿐이고 TV를 본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했는지도 다 잊어버렸다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욕망을 묵혀두었는지조차 잊은 것에 대해 말하였다. 그러면서 나만의 오롯한 시간이 주어져도 무엇을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게 물었다. 참여자는 친구들도 1년에 3~4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것이고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힘든 때가 많다, 아이들이 귀엽고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받다가도 귀찮다는 생각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나는 그간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하면서 삶에 작은 활력소나 에너지를 찾는 방법이나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함께 떠올려보자고 했다. 참여자는 생각에 잠기더니 예전에 꽃꽂이 하는 것을 좋아했다며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서 꽃을 만졌을 때 좋았던 경험을 생각해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 홍대나 인사동 거리에서 활력을 느끼며 이것저것 구경하거나 문화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집에 책들이 많은데, 다시 읽고 싶은 책들의 순서를 매겨서 책장에 꽂아놓고 읽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참여자의 아이디어가 실천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다고 말해보았다. 월데이 플라워 클래스는 2~3시간이면 할 수 있으니 잠시 아이들을 남편이나 가족에게 맡겨놓고 해보시는 것은 어떠냐고 권했다. 아이 아빠가 싫어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잠깐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 해야겠다고 하셨다. 나 역시 꽃과 식물을 만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공유하며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꼭 하시길 바랐다. 참여자는 오랜동안 잊고 있던 경험이 그리워졌다며 기왕 이야기를 해본 김에 정말 꼭 해보겠다는 말을 전했다.

인사동처럼 활력이 느껴지는 거리를 걷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로 해보면 어떨까 권해보았다. 인사동에서 점심도 드시고 여러 상점을 구경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괜찮은 나들이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참여자는 꼭 해봐야겠다, 그러고보니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회사 다른 부서의 부장님이 자신에게 차 한잔 사주러 찾아오셔서 즐거워보인다, 좋아보인다 응원도 해주시고, 안부와 여러 근황을 물어봐주시며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일을 해보자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렇다면 그 감동과 감사함을 참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보면 어떻겠냐고 권해보았다. 평소에 잘 챙기지 못한 후배나 사람이 있다면 참여자가 받았던 감동의 경험을 반대로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참여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하며 11월에 갑자기 실천해보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정말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의미 있는 점심 시간이 되어 좋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종료되었다.

3. <도시꿀집>과 사람, 그 사이의 예술

나는 아늑한 작은 꿀집에 머물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운을 누렸다. 누구와 소통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거침없이 글을 주고 받았던 시간은 '역동적인 포근함'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징후와 증후군을 목격한 씩씩한 경험이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며 괜찮은 척 애쓰고 있음을 또 한 번 느꼈다. 참여자들은 여의도공원을 방문했다가 호기심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도시꿀집>을 경험했다. 예술가에게 공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은 마냥 모르는 타인은 아닌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묘한 경계에 놓인 존재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그들과 함께 온 몸으로 기입한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도시꿀집>은 공원의 어느 한 편에 새롭게 고안된 건축디자인물을 개입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냈고, 평소에는 지나쳤던 새로운 풍경과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며 공원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이끌어냈다. 내가 경험한 <도시꿀집>은 공원이라는 장소성에서 직장인들의 욕망과 기호를 예술적으로 일치시킨 것이었고, 화이트 큐브나 블랙박스의 공간적 제약 밖에서 기존 관념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적 이상과 표현에 다가가고자한 문화 기획이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라면 돈을 지불하고 수면방이나 고급안마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도시꿀집>은 공원 휴식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그 때 그 곳에서 공동의 기억'을 남긴 도심 속 참여 예술이다. 즉, 관객의 반응과 참여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 프로젝트이면서 낮잠이든 감정 공유 소통이든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각이 퍼포머performer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예술 설치물을 궁금해하며 다가와서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체험하려 신청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타인들의 욕망도 확인했을 것이다. 그 공간을 떠나면서 잘 쉬었다는 표정과 따뜻한 소감을 목격하면서 <도시꿀집>이 공원에서의 경험을 한 단계 확장하고 발전시켰다고 믿는다. 공동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은 훗날 그곳을 지나치며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2015년 영국 현대미술 최고 권위상인 Turner Prize의 수상자 <Assemble>은 버려진 유휴공간을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지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및 행동 전환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누구도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가 변화하는만큼 예술도 그렇게 반응해야 하고 자신들도 그에 맞게 계속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원거리예술의 <도시꿀집>은 공원 예술 썬Art Scence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시도가 더욱 확산되고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길 고대한다.